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2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9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2. 19(화)	담당부서	해외투자과
담당과장	최우혁 과장(044-203-4090)	담 당 자	이영희 사무관(044-203-4092)

산업부 · KOTRA「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」결과 발표

◆ 매출실적 응답법인의 81%에서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

◆ 중국·베트남은 임금상승·인력채용, 인도·CIS 등은 법률·조세·통관 관련 애로 호소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와 **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**는 전 세계 125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을 통해 12,500여개 현지진출 법인을 대상으로 '18.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**「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」 결과를 발표**했다.

○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KOTRA에서 **매년 실시해 온 현지법인 애로조사**에 더해 현지법인의 매출실적*, 고용현황 등 **경영현황 조사항목을 신설**하고,

* 매출실적 응답은 조사시점('18.8~11월) 기준 추정치이며, 실제 '18년 매출실적은 '19년말 수은이 집계 발표(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)

- 기존의 자유서술형 조사방식에서 **애로사항 조사항목을 8개 분야* 56개 항목으로 계량화**하여 **국가별·항목별 체계적인 결과분석이 가능**하도록 했다.

* 영업, 노무, 통관, 생산, 법률, 금융, 조세, 지재권

【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개요】

- **모집단** : 해외 현지법인 12,500여개 사
- **조사기간** : '18.8월 ~ 11월
- **조사방법** : KOTRA 125개 무역관을 통한 이메일·우편·전화 설문조사
- **조사항목** : 매출·고용 등 경영현황 및 분야별 애로사항
- **응답법인 수** : (매출실적) 2,513개사, (고용현황) 3,502개사, (애로사항) 2,528개사

□ **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실시결과는 다음과 같다.**

매출실적

□ 매출실적 조사에 응답한 **현지법인(2,513개사)의 81%가 매출실적이 증가 또는 유지**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국제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**대체로 선전**한 것으로 추정된다.

* 매출실적 전망 응답 비중 : △증가(46%), △유지(36%), △감소(18%)

○ 국가별로는 **베트남, 미국, 일본** 등에 진출한 법인의 **50%이상이 매출액 증가를 응답**한 반면, 중국은 매출증가를 응답한 법인이 39%에 불과하여, **중국의 시장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**된 것으로 분석했다.

* 국가별 매출실적 증가 응답비중 : △베(59%), △미(56%), △日(51%), △中(39%)

□ 한편, 매출실적에 응답한 법인 중 현지 시장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**축소, 철수 또는 이전을 고려**중이라고 응답한 법인은 **171개사**이고, 이 중 **중국내 소재한 법인이 34%**로 가장 높았다.

○ 타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법인은 36개사로 대다수는 **현재 진출지역과 인접한 국가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**중이었으며, **일부(7개사)는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려**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고용현황

□ 고용현황 조사에 응답한 현지법인(3,502개사)은 **단순 생산직종에 대부분 현지인력을 채용(99%)**하고 있었으며, 마케팅, 상품개발 등 **관리직종에서는 한국인 채용비중이 13%(12,200여명)로 다소 높은 편**으로 나타났다.

○ 한편, 현지법인 설립으로 국내 본사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%인 반면, 증가했다는 응답은 28%로 **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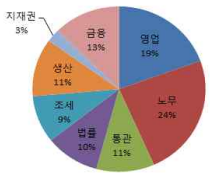
애로조사

□ 현지법인 애로사항은 공통적으로 인력채용*, 경쟁심화** 등 **노무·영업분야 애로**가 많은 가운데, **중국·베트남은 임금상승**, **인도·독립국가연합(CIS) 등은 통관절차 관련 애로**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(중복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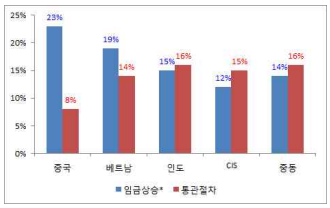
* 인력채용 애로 : 현지인 및 한국인 직원채용 애로, 현지인의 높은 이직률 등

** 경쟁심화 애로 : 현지기업과의 품질·가격 경쟁, 현지 거래처 가격인하 요구 등

<분야별 애로사항 비중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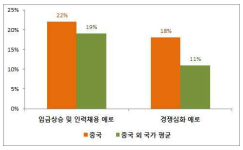
<지역별 임금상승*·통관절차 애로사항 비중>



* 임금상승 애로 비중은 노무분야(채용·노동규제 등) 애로 건수 중 임금상승 애로 건수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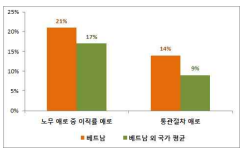
○ 전통적인 투자대상국인 **중국**은 **임금상승·인력채용** 애로와 **가격·품질경쟁 심화**에 따른 애로가 다른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지기업의 성장 및 **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심화가 지속**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<중국 진출법인 주요 애로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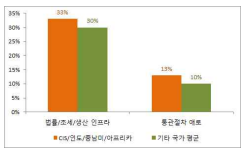
○ 중국 대체시장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**베트남**은 임금상승뿐만 아니라 **현지인의 높은 이직률**에 따른 애로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, **통관절차와 관련된 애로**도 중국 등 다른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베트남 진출법인 주요 애로>



○ 신흥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독립국가연합(**CIS)·인도** 등은 **법률·조세·생산 인프라* 미비에 따른 애로**가 많았으며, 복잡한 통관절차, 불분명한 관세부과 기준 등 **통관절차 애로가 다수 제기됐다.**

<CIS·인도 등 진출법인 주요 애로>



* 투자보호법 미비, 불명확한 조세기준, 생산설비·전력·물류 인프라 부족 등

○ 한편, 미국과 중국에 진출한 법인 중 일부는 **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부족**을 애로로 제기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**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증대**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에 대해 **국가별 심층분석을 실시**하여 **현지법인 애로사항 해소와 유턴지원 등 관련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**하기로 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현지법인 애로해소를 위해 전 세계 주요국에 위치한 **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***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무역관을 통해 **현지에서의 애로해소 밀착지원을 강화**하는 한편,

* 14개국 21개소 KOTRA 무역관에 설치되어 현지국 투자정보 제공, 애로사항 해소, 전문분야별 경영상담, 주재국 정부기관과의 교류활동 등을 지원

- 진출기업 중 **타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**에 대해서는 **최근 개편한 유턴지원 제도*를 적극 활용해 국내로의 유턴을 다각적으로 유도**해나갈 계획이다.

*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('18.11.19) :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, 인센티브 보강, 지원절차 간소화 등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이영희 사무관(☎ 044-203-40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